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위안, 미-중 무역합의 진전 여부
관계없이 약세 전망
- ◇ (그래프)-ECB, 2021 년 금리 인상할까
- ◇ (초점)-국고 10 년/30 년 금리 재역전에 시
험대 오른 기재부 커브 정상화 의지.."조금
더 지켜볼 것"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군부 요인을 드론으로 살해한 뒤 긴장
이 고조된 중동 지역으로 떠나는 미국 육군 낙하산
부대원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브라이
언 울스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61.3	0.5%	-0.4%	-3.5%	유로	1,1120	-0.3%	-0.8%	-2.3%
100엔 대비	1,057.6	1.9%	0.4%	-4.4%	엔	109.46	-1.3%	-0.8%	0.9%
유로 대비	1,287.7	1.0%	0.5%	-1.3%	위안	6.9324	0.5%	0.4%	-1.3%
위안 대비	167.32	-0.1%	-1.0%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823.77	0.7%	1.0%	22.3%
코스피	2,206.39	1.4%	0.4%	7.7%	나스닥	9,178.86	1.8%	2.3%	35.2%
코스닥	673.03	0.5%	0.5%	-0.9%	S&P500	3,265.35	0.9%	1.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64.45	1.4%	2.1%	15.8%
국고채 3Y	1.425%	15.5bp	6.5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546%	18.5bp	6.6bp	-40.4bp	미국채 2Y	1.570%	3.7bp	0.9bp	-93.7bp
국고채 10Y	1.706%	15.1bp	2.3bp	-26.5bp	미국채 10Y	1.820%	2.6bp	-9.0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59.04	-6.4%	-3.3%	34.5%	한국 5Y	21.4bp	-0.9bp	0.3bp	-17.0bp
금(현물)	1,562.03	0.7%	3.0%	18.3%	일본 5Y	19.1bp	1.4bp	1.4bp	-4.0bp
TR상품지수	2,520.06	1.8%	1.4%	4.8%	중국 5Y	31.0bp	-0.9bp	0.4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13일(월)>

- 한은,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06:00)

<14일(화)>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5일(수)>

- 한은, 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통계청, 2019년 12월 고용동향(08:00)

<16일(목)>

- 한은, 2019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17일(금)>

- 기재부,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본회의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13일(월)>

- 일본 휴장

<14일(화)>

- 일본, 12월 은행대출 (8:50)
- 일본, 11월 경상수지 (8:50)
- 미국, 12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22:30)
- 중국, 12월 수출입 (미정)
- 미국, 12월 연방예산 (15일 4:00)

<15일(수)>

- 일본, 12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8:50)
- 유로존, 11월 무역수지 (19:00)
-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2:30)

<16일(목)>

-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간(4:00)
- 일본, 1월 로이터 단칸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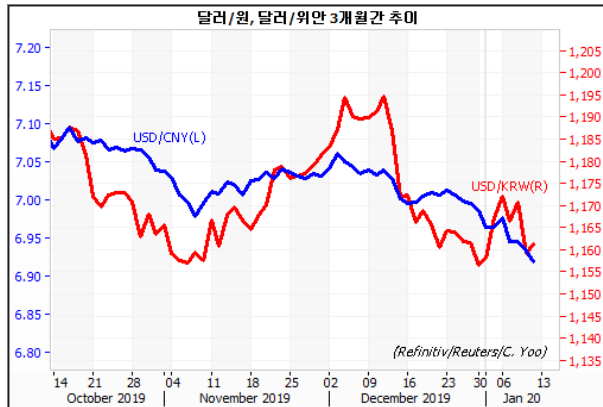
- 일본,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 (8:50)
- 일본, 11월 기계주문 (8:50)
- 중국, 12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12월 수출입물가 (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2월 소매판매 (22:30)
- 미국, 11월 기업재고 (자정)
- 미국, 11월 소매재고 수정치 (자정)
- 미국,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7일(금)>

- 중국, 12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12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12월 소매판매 (11:00)
- 중국, 2019년 4분기 GDP (11:00)
- 유로존, 11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12월 건축허가 (22:30)
- 미국, 12월 주택착공 (22:30)
- 미국, 12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자정)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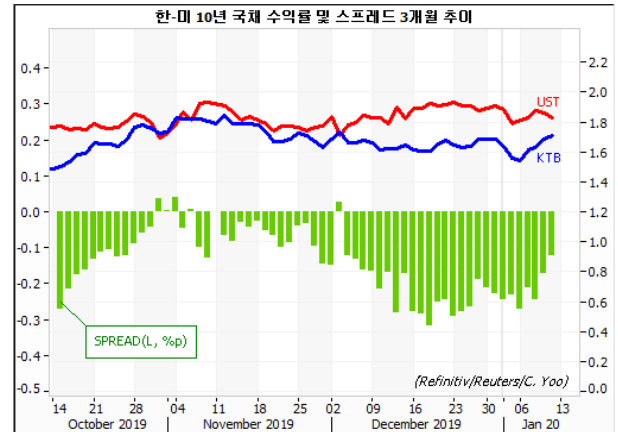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도 무게중심은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52-1172 원**이다.
-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이 1 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으로, 이를 전후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지난 6거래일 동안 약 1.3조원(유가증권시장 기준)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매집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 최근 중동 지정학적 불안 고조에도 위안화는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강세 압력을 높여 왔다. 그 결과 달러/위안(CNH)은 5개월 만의 최저치로 내려와 있다.
-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달러/원 환율의 상단 압력은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실물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세계 경제의 반등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또한,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회의가 주말에 예정돼 있다. 한은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로 크게 조정될 경우 원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와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금리 상승폭이 컸던 만큼 추가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단기간에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온 데다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도 커져 추가 조정 시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1 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관건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관세율을 일부 낮추고 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식 합의문은 서명식 이후 공개된다.
- 미국과 이란 간 대결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문답 내용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당초 소신대로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유지할 것이냐도 관심이다.

(POLL)-위안, 미-중 무역합의 진전 여부 관계없이 약세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벵갈루루 (로이터)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1 단계 무역합의에도 양국간 관계는 험로가 예상되며 2020년 위안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외환전략가들을 대상으로 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위안은 2019년 달러 대비 약 1.3% 절하된 뒤 2020년 초 일부 낙폭을 회복했다.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1 단계 무역합의 서명 소식에 지지받아 5개월래 고점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이터 조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위안 강세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관세를 취소할 것이라는 더 폭넓고 명확하며 영구적인 합의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아태지역 금융시장 리서치 헤드는 "향후 무역합의가 깨질 것이며 현재의 낙관론에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위안을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안이 강세를 보이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가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1월 3-9일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역대 달러/위안은 3개월 후 1% 가까이 상승해 7.0 위안까지 오른 후 12개월 후까지 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는 6.92 위안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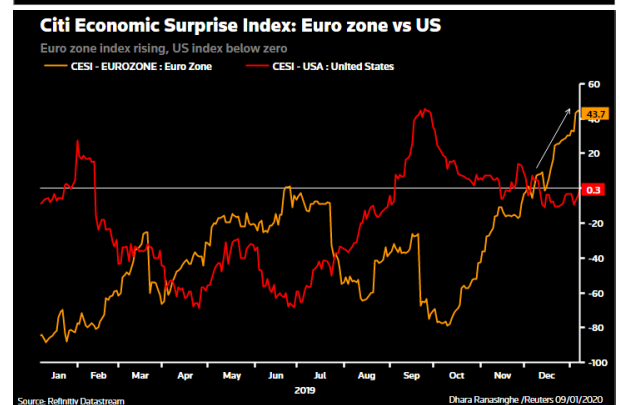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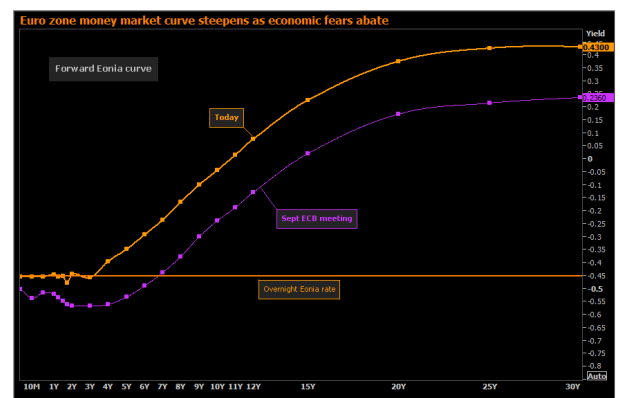
아이리스 팅 ING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1 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이 2, 3 단계 합의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위안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선 후 무역회담 진행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 같다"라며 "역시 불확실한 전망이지만 만약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도 무역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2020년 위안 전망은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 더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조사에도 참가한 응답자 49명 중 24명은 위안이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11명은 하향 조정했으며 나머지는 지난달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래프)-ECB, 2021년 금리 인상할까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런던, 1월 10일 (로이터) - 머니마켓이 유로존 경제가 최악의 고비는 넘겼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추

가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해 내년 유로존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머니마켓은 2020년 ECB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베팅했었다. 그러나 경제지표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로 포지션을 바꿔야했다. ECB는 9월 사상 최저치인 -0.5%로 금리를 인하했고,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입을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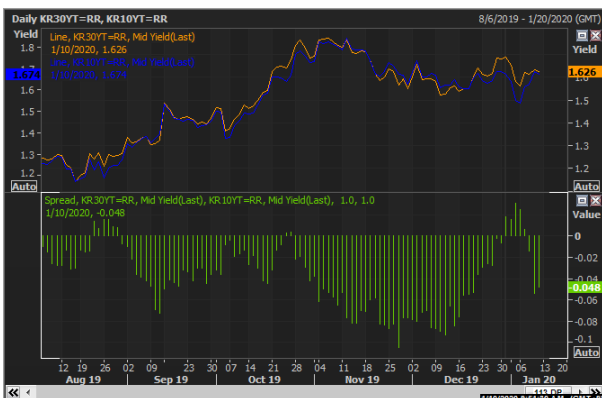
이후 추가 인하 전망은 줄었고, 이오니아와 유리보 금리선물은 시장에 다시 2021년 긴축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ING의 앙투안 부베 금리 전략가는 "12월에 눈에 띄는 전망의 매파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커뮤니케이션 공백, 수장 교체, 다가오는 정책 리뷰가 시장에 더 매파적인 ECB를 기대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CB가 스웨덴처럼 마이너스 금리 실험 종료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메르츠뱅크의 크리스토프 라이거 금리 헤드는 "스웨덴의 조치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면서 "ECB가 교훈을 얻어 올해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다"고 말했다.

(초점)-국고 10년/30년 금리 재역전에 시험대 오른 기재부 커브 정상화 의지.. "조금 더 지켜볼 것"



(국고 10년/30년 금리 스프레드,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정상화됐던 국고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다시 역전됐다.

원화채에 대한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커브 정상화 의지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는 당장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현 수준보다 급격히 늘리기보다는 2월 국고채 50년물 발행 등에 대한 시장의 물량 소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고 10/30년 금리, 최근 다시 역전폭 확대

10일 레피티티브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국고 30년 지표물 금리는 지난 8일을 기점으로 국고 10년 지표물 금리와 역전됐다. 9일에는 국고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전폭이 5.4bp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하회한 이후 두 달여 만인 12월 말에야 다시 10년물 금리 위로 올라섰다. 보험사가 초장기물 위주로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12월 국채발행량이 크게 준 게 당시 커브 왜곡에 영향을 미쳤다.

초장기물 강세 흐름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시장 이자율 기간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12월 중순 이후 확연히 꺾이기 시작했다.

특히 기재부가 '1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한 12월 26일 이후 기점으로 10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전은 해소됐다. 기재부는 1월에 30년물을 2조 7000억 원 발행한다고 발표해(3년물 2조 2000억 원, 10년물 2조 6000억 원) 커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음을 시장에 알렸다.

그 결과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앞둔 지난 3일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는 3.1b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7일 30년물 입찰을 마친 후부터 다시 스프레드가 역전됐다.

▲ 초장기물 선전, 이유 있다

국고채 10 년물과 30 년물 금리가 재역전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채권금리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투자기관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초장기물이 선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하나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부장은 "보통 이렇게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정책조합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함께 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부동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딜링기관의 포지션이 꼬였고, 은행투자 계정은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을 받아야 하니 여력이 많지 않고, 외국인도 더 사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국채를 담을 수 있는 곳은 보험사 등 장투기관뿐"이라며 "그러다 보니 다시 초장기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채 외에 보험사의 투자 옵션이 많지 않아 당분간 장기물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채 투자시 기대할 수 있는 원화환산 수익률이 원화채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체투자마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한 채권운용부장은 "다른 하우스 운용부서장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올해 금리를 상고 하저로 보고 있다"며 "지금 위험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올 때 채권을 매수해 놓아야 하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더블 A 월마트 30 년물 채권을 사면 2.96%가 나오는데 헤지프리미엄이 -100bp 니까 원화환산 수익률은 1.96% 정도"라며 "월마트 채권을 1.96%에 사느냐, 30 년물 국채를 1.67%에 사느냐의 문제로 봤을 때 해외채가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SOC 투자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보니 작년 연초만 해도 다들 대체투자 딜 때문에 엄청 바빴는데 올해는 별로 이슈가 없다"며 "원화채 말고 투자 대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커브 정상화 VS 오버슈팅 가능성' 놓고 고민

국고채 10 년물과 30 년물 금리가 재역전되면서 기재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기재부 2 차관이 나서서 커브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시장 수요에 따라 공급이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기재부의 물량 공급이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 '커브 정상화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체력 이상으로 장기물이 공급될 경우 시장 전반의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고채 30 년물 발행 과정에선 이란 사태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 게 완충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며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커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보다 장기물 비중을 늘렸을 때 시장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단 2 월에는 50 년물 발행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커브가 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장 발행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장참가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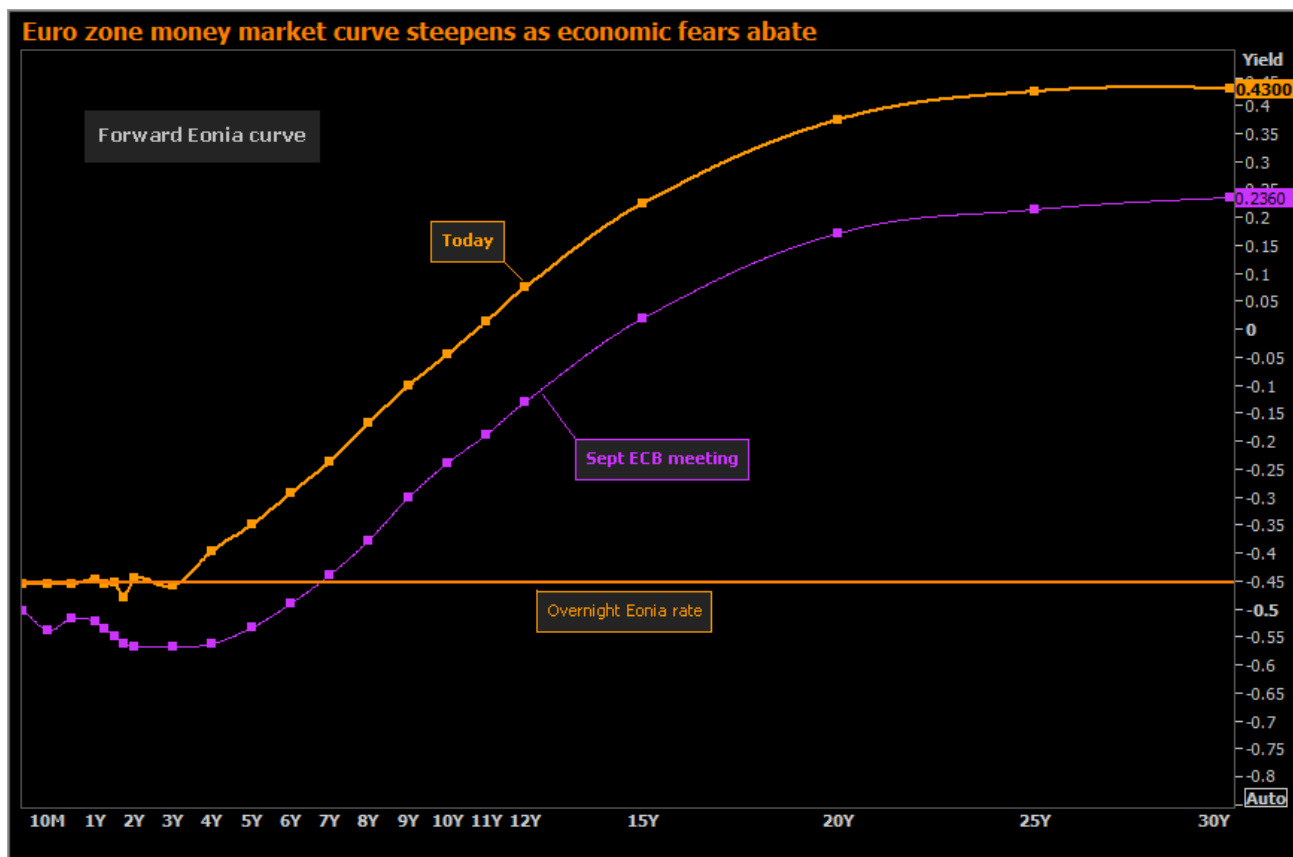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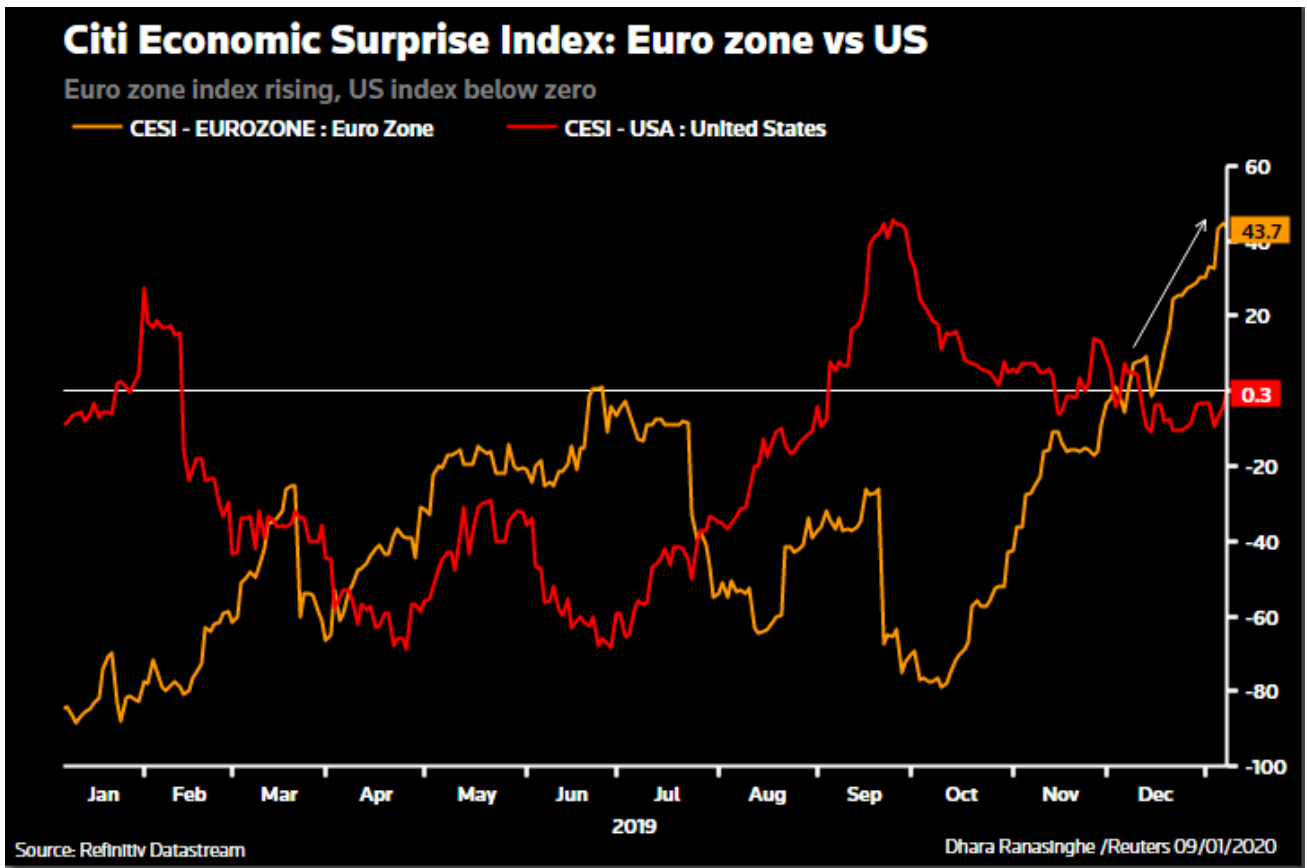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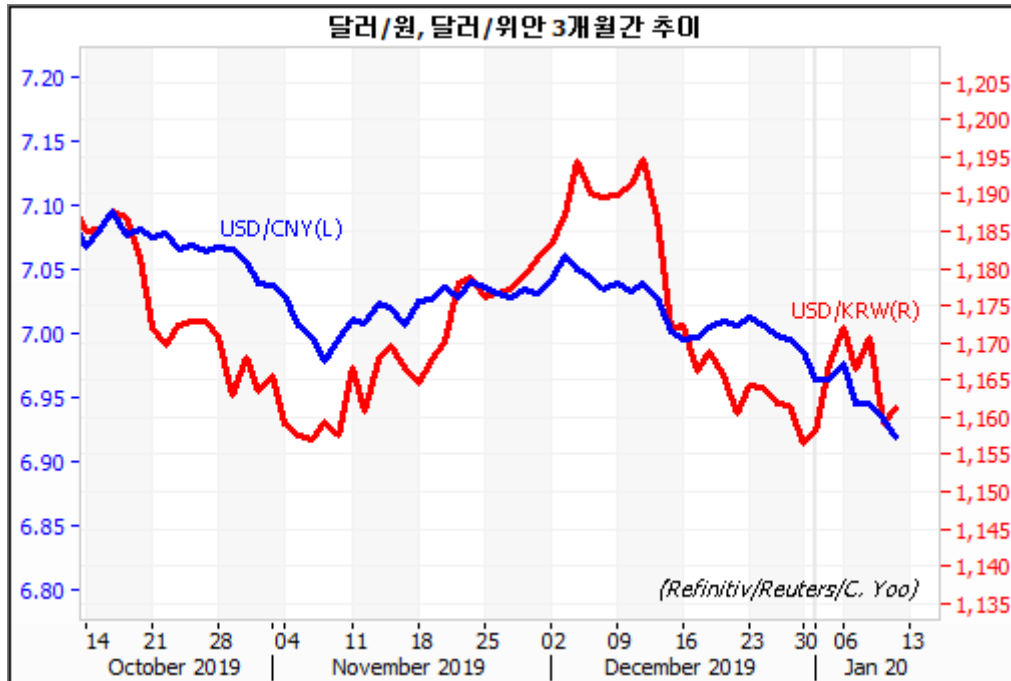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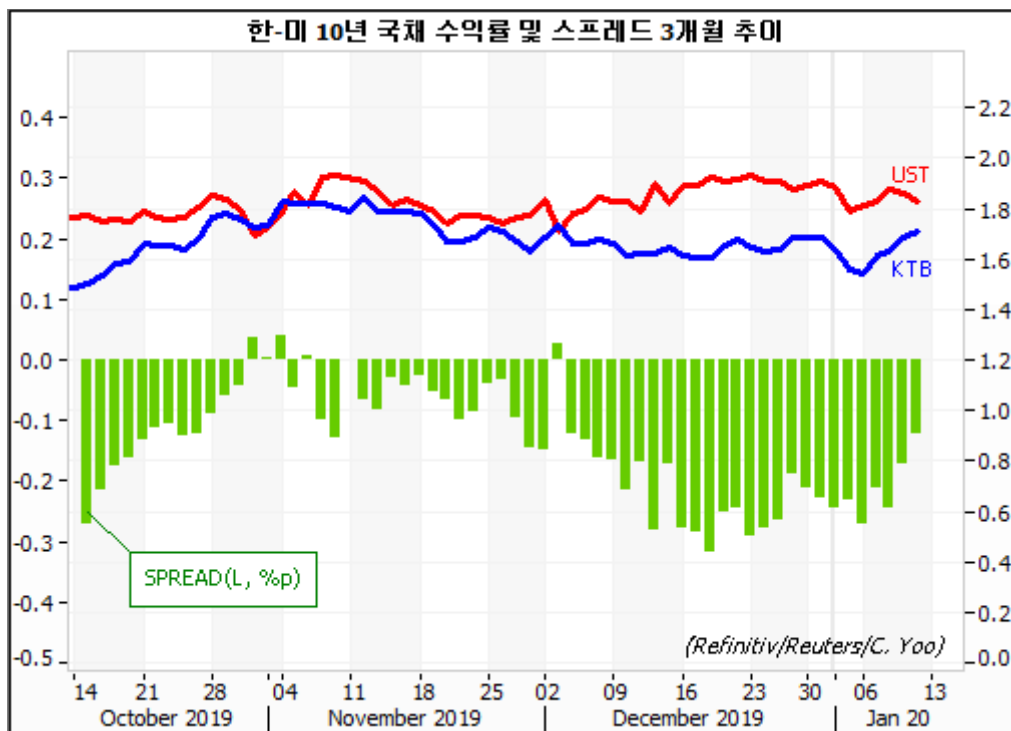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